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UPDATE
2013년 2월 4일 | Vol. 13 No. 2
ISSN 1976-0515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3460-1156)
정 철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cchung@kiep.go.kr, Tel: 3460-1184)
이준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jwlee2@kiep.go.kr, Tel: 3460-108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배경

2.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체감의 어려움

3. 상품 다양성을 감안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4.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철폐 ·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i)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여 수입관세 철폐 효과를 상쇄시킴.

ii) 같은 기간 환율이 하락하여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도착가격이 하락했으나, 다시 통관 이후 국내유통과정에서 수입독점공급 등 경쟁 제한적 요인과 일부 과시적 소비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입관세 인하효과가 최종소비자까지 전달되지 못함.

iii)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소비재 수입비율이 10% 이하로 낮아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소비재 가격인하가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iv) 주요 수입 소비재 관세가 장기에 걸쳐 완만히 철폐됨.

v) 무역자유화에 따라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품질이나 기능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수입물가지수 산정방법도 이유임.

▶ 상품 다양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입소비재를 대상으로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약 20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수입품의 다양성은 지난 20년간 (1992~2011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입선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함.
- 상품 다양성 변화를 감안하여 정확한 수입물가지수를 계산한 결과 지난 20년간 수입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GDP의 4.7~12.8%(310억~8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유통 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높여 이들의 적극적인 가격감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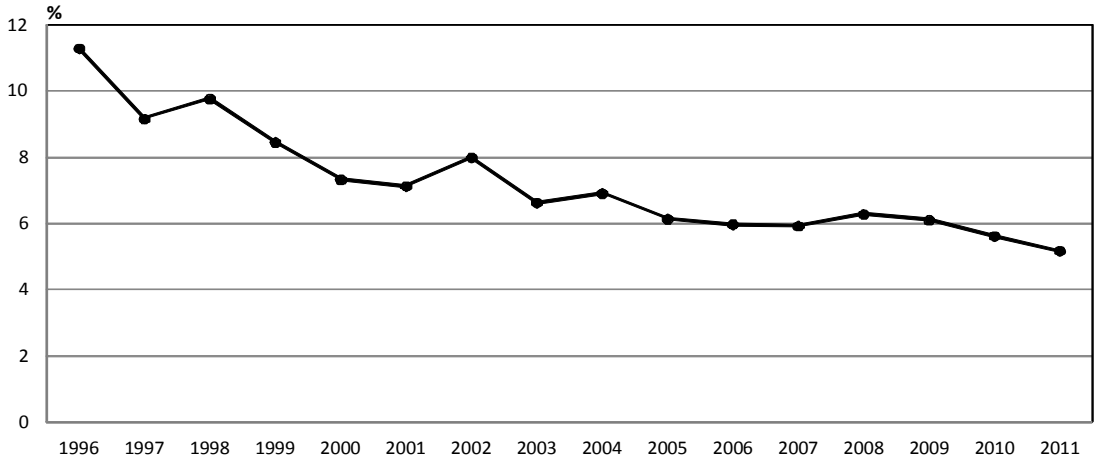
- 국내유통 과정에서 주요 수입 소비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의 국내생산 지원과 함께 국내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및 상품평가 활동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유통마진이 큰 수입 소비재는 유통이력관리제를 적용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통마진을 줄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1. 배경

■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래 1986~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무역자유화협상 이행을 계기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단행해 왔음.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1%로 약 54% 인하되었음.[1)]

- 우리나라는 1986년 개시된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무역자유화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관세감축과 시장개방을 단행하였음. 우리나라는 UR이행을 계기로 양허관세를 평균 54% 감축하였으며, 무관세 양허비중도 UR 이전의 4%에서 26%로 대폭 확대했음.

그림 1. 수입액 가중 평균 양허관세율 추이(1996~2011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 2000년대 들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한 결과 현재 미국, EU를 포함하여 45개국과 8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영토의 약 60% 지역과 FTA를 발효한 명실상부한 FTA 중심국이 되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무역자유화에 따라 수입 소비재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변화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승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소위 무역자유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1)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양허관세의 평균치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2.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체감의 어려움

가. 수입관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환율 및 수입가격의 변화

■ 수입상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수입관세보다 국제가격(국내도착가격)이나 환율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수입상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① 수입상품 자체의 국제가격(또는 국내도착가격), ② 환율, ③ 수입관세, ④ 수입통관 이후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통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환율이나 국제가격의 변화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수입관세의 변화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부록 1 참고).
- 따라서 국제가격이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수입관세 철폐효과를 상쇄시켜 최종 소비자가격에 변화가 없거나 때로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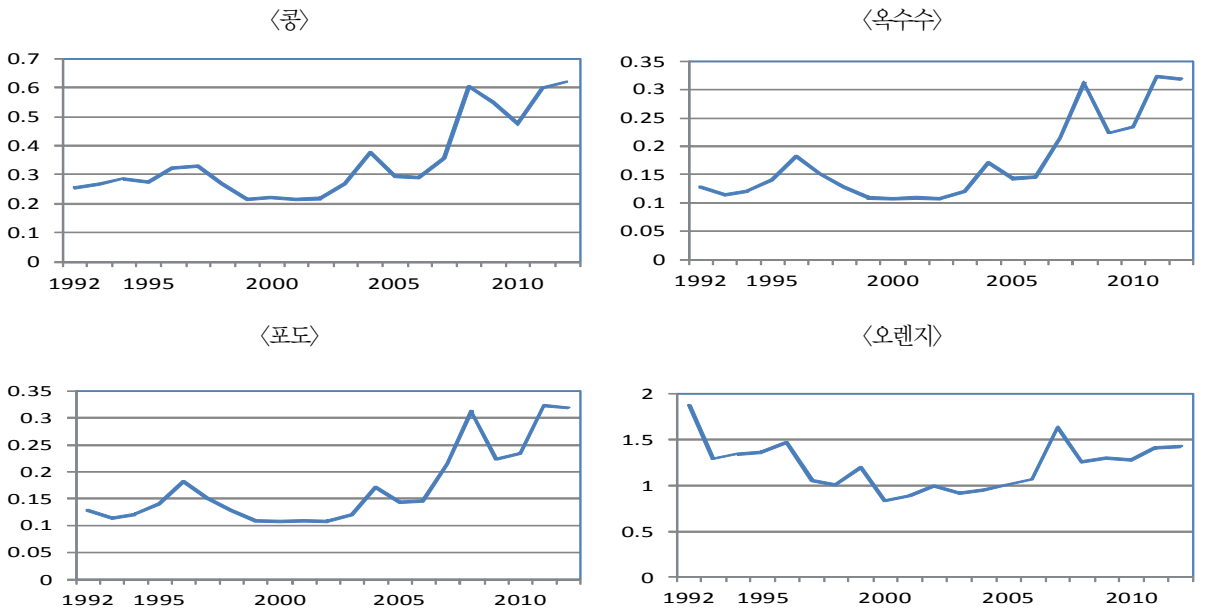
※ 다른 조건(국제가격, 환율, 유통비용 등)이 일정하다면 관세감축이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 실제 주요 수입소비재의 경우 1992~2011년 수입가격(달러화 표시)을 조사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그동안의 관세감축 효과를 상쇄시켰음.

- 수입소비재를 농식품과 공산품으로 구분해 1992~2011년 단위당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임(그림 2 및 그림 3 참고).

그림 2. 주요 수입 농식품 수입가격(1992~2011년)

(단위: 달러/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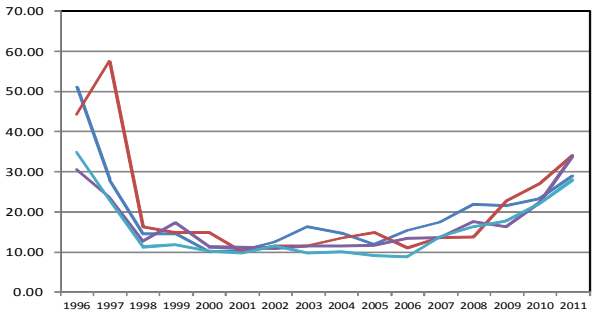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무역통계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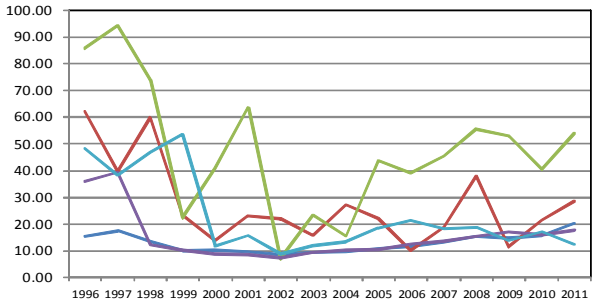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수입 공산품 수입가격(1992~2011년)

(단위: 달러/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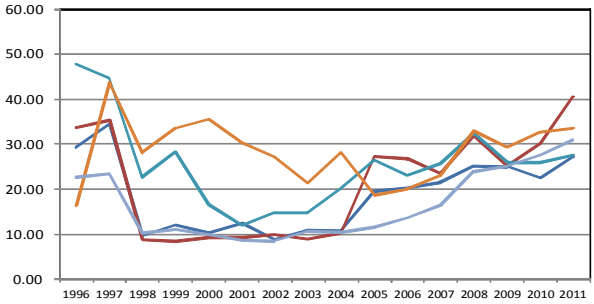
〈유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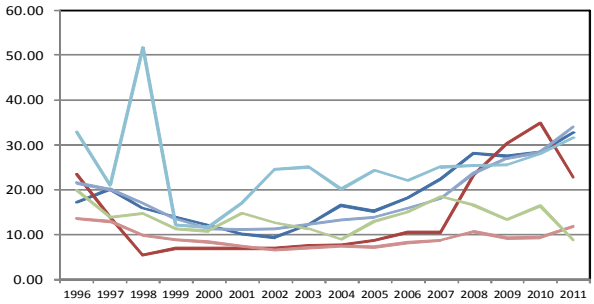
〈티셔츠〉



〈남자외투〉



〈남자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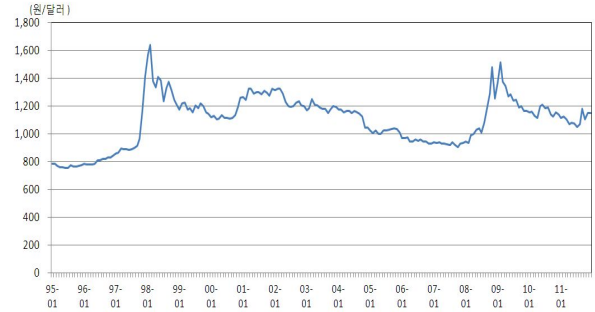
주: 수입가격이 여러 개로 나타난 것은 해당 소비재에 HS 10단위 기준 수입가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한편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하락(원화 강세)으로 국제가격 상승효과가 상쇄되면서 실제 주요 수입소비재의 원화표시 국내도착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비교적 안정된(때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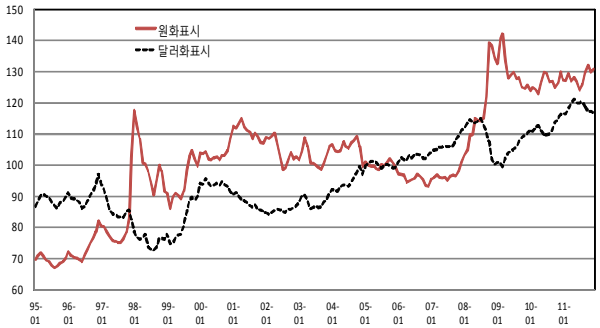
-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관세 철폐(인하)효과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가격 상승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으나, 다시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원화표시 수입물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완만하게 떨어졌으며, 결국 수입 소비재의 원화표시 수입가격은 우리나라 국경도착시점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음(그림 4 참고).

그림 4. 원-달러 환율 및 수입 소비재 물가지수 추이(1995~2011년)

〈원-달러 환율 추이(1995~2011년)〉



〈소비재 수입물가지수 추이(1995~2011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소비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로 i) 수입소비재의 무역비중이 작음, ii) 소비자 체감이 용이한 주요 농식품 수입관세의 완만한 감축, iii) 수입 다양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문제, iv) 통관 이후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국내 유통과정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음.

나.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10%에 불과하여 수입관세 철폐(감축)효과가 국내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국내물가 인하효과 체감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

표 1.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입추이 (1990~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소비재	5,718 (8.2)	13,216 (9.8)	14,026 (8.7)	26,395 (10.1)	41,855 (9.8)	52,403 (10.0)
직접 소비재	2,744	5,537	6,325	9,383	14,931	19,952
내구 소비재	2,151	5,134	4,726	10,619	16,289	18,645
비내구 소비재	792	2,544	2,975	6,393	10,635	13,806

주: 소비재의 정의는 한국무역협회의 분류정의를 따름. ( ) 안은 총수입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다. 주요 수입 소비재 관세의 점진적 인하

■ 우리나라의 수입 소비재 평균 양허세율은 10% 수준으로 관세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데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주요 수입 소비재의 관세감축은 일정한 이행기간을 두고 완만히 감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쇠고기 수입관세 40%는 한·미 FTA에서 15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년에 2.7%씩 관세가 인하되며, 돼지고기 관세 20%도 매년 2%씩 낮아져 10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양허했음.
- 공산품 중 전기면도기는 8%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되어 연간 1.6%씩 관세가 인하되며, 핸드백도 8%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되어 연간 감축률은 2% 수준임.

■ 연간 2~3%의 관세감축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음.

- 2012년 평균 냉동 수입쇠고기의 수입가격은 약 5,500원/kg이고 연간 2.7% 관세인하는 연간 150원/kg의 가격

인하를 의미하는바 관세인하가 모두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연간 150원/kg의 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라. 경쟁제한적 국내유통구조와 과시적 소비

■ 공산품 주요 수입소비재의 국내유통시장은 대부분 공급 독점임.

-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지사를 통해서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거나 국내수입업체가 해외 제조사와 독점수입계약을 맺고 국내공급을 독점하는 형태가 대부분임.
- 일부 병행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며, 특히 브랜드 명성이 높은 수입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독점구조임.

■ 이에 따라 수입관세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상당한 유통마진을 발생시켜 관세인하 혜택이 수입 공산품 공급업체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국내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적인 수입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수입 공산품의 중간 유통마진의 차이에서 분명히 드러남.

- 칠레산 수입 포도나 수입 삼겹살과 같이 국내에 경쟁 가능 상품이 많은 수입 농산물의 경우 국내 유통마진은 국산 농산물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때로는 국산 농산물보다 작은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수입 공산품의 유통마진은 국산 제품의 2~3배에 달함.

표 2.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의 유통마진율 비교

(단위: %)

	포도		돼지고기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 칫솔	
	국산	칠레산	국산	수입(냉동 삼겹살)	국산	수입산	국산	수입산	국산	수입산
마진율	45	30	43	47	23	56	23	62	23	63

자료: 공산품은 통계청과 도소매업 총조사(2011), 농산물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2012 축산물 유통실태,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및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여기에 수입소비재의 브랜드나 배타적 상품 특성에 기초한 소비 차별화 마케팅 전략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과시적 소비행위가 상호작용하여 동종의 국산제품보다 높은 마진을 형성함.

- 일부 고소득층의 과시적 욕구로 창출된 수요에 가격이 비쌀수록 더 사려고 하는 소비심리와 소비동조화 경향 등이 높은 소매가격이 유지되는 원인이기도 함
- 비싼 유모차로 유명한 스토어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고가 명품의 과시적 소비행태의 한 예로 볼 수 있음.

마. 품질 변화 및 신상품의 효용에 대한 체감의 어려움

■ 품질변화나 신상품의 출현 등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임.

-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 효과는 직접적인 가격인하효과 이외에도 이전에 비해 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져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품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음(농산물 수입개방확대로 예전에는 접하기 어려운 키위나 파인애플, 망고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겨울철 딸기'도 무역자유화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상품 중 하나임(다양한 열대과일 수입으로 딸기수확기에 열대과일과 딸기 간 소비경쟁이 치열해지자 국내에서 겨울철 온실재배를 통해 겨울철 딸기를 재배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보기 어려운 겨울철 딸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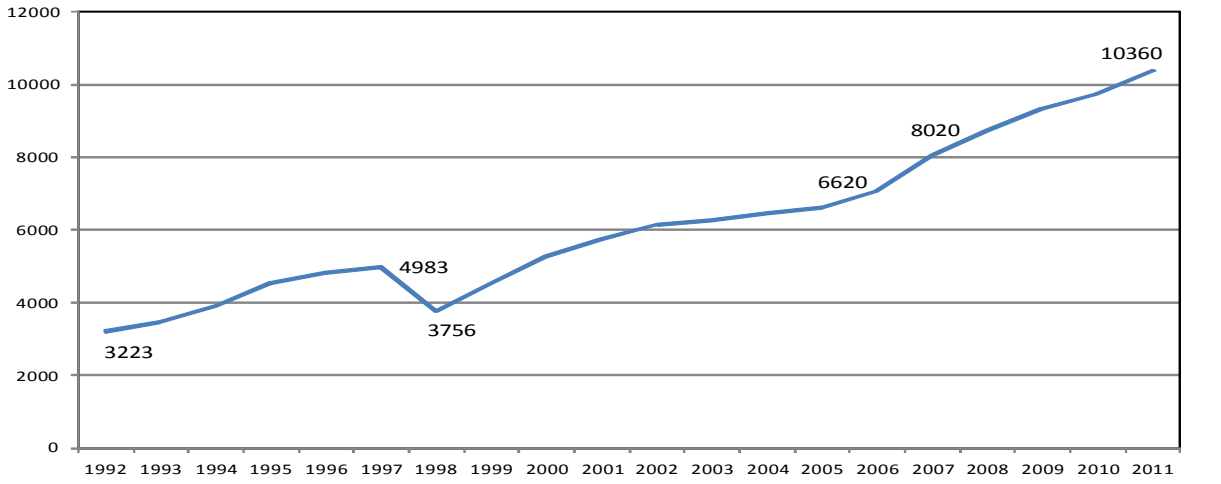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신상품으로 인한 소비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같은 상품이라도 무역자유화 이전보다 브랜드의 종류가 늘거나 품질, 성능, 디자인 등이 좋아진 경우도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 것으로, 일종의 무역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무역자유화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

■ 실제 지난 20년간 주요 수입 소비재 234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상품의 다양성 변화를 살펴보면 상품의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했음.

- 수입 상품 다양성을 HS 10단위에서 원산지로 볼 경우 234개 주요 수입재의 다양성은 1992년 3,223개에서 2011년 1만 360개로 20년간 약 320% 증가했음.

그림 5. 수입 상품의 다양성 증가 추이

(단위: 개)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기초하여 직접 계산.

3. 상품 다양성을 감안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 무역자유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품의 다양성은 1992년부터 2011년 사이에 6만 4,000여 개에서 13만 2,000여 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음(표 3 참고).

- HS 8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상품 수는 1992년 8,041개에서 2011년 8,893개로 약 11% 늘어난 반면, 같은 상품이라도 수입품의 원산지가 다르면 다른 종류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상품 다양성을 정의하여 측정한 상품 다양성은 지난 20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하여 수입선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반증함.

표 3. 우리나라의 수입품 다양성의 증가 (1992~2011)

연도	상품 수 (HS 8단위)	상품당 수입국가 수	총 상품종류 수
1992 (A)	8,041	6	64,162
2011 (B)	8,893	10	132,993
(B/A)*100 (%)	110.6	166.7	207.3

주: 상품 종류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HS 8단위 기준 상품으로 정의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및 관세무역개발원 무역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 그러나 전통적인 물가지수는 상품 다양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 Feenstra(199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확한 물가지수를 계산하고 우리나라의 일부 수입소비재에 대해 상품 다양성 증가를 감안하여 무역자유화 효과를 추정한 결과 GDP의 약 0.3%(금액으로 약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무역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음.[2)]

■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적으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약 550억~1,45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약 310억~850억 달러)로 나타났음.[3)]

2) Feenstra, Robert(1994), "New Product Varieties and the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Pr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84(1), pp. 157-177.
3) 지난 20년(1992~2011년)간 평균 GDP는 약 666억 달러임. Arkolakis, Costas *et al.*(2008), "Endogenous Variety and the Gains from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pp. 444-450. (May); Feenstra, Robert(2010), *Product Variety and the Gains from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표 4. 수입 다양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

우리나라의 무역 이익	수입 비중 (%)	수입 다양성으로 인한 무역이익(%) 대체탄력성(σ)의 크기				
		σ = 2.5	σ = 2.9	σ = 3.6	σ = 4.4	σ = 5.2
1996년 총수입 기준	26.2	18.3	14.8	11.0	8.5	6.9
1996년 내수용 수입 기준	17.7	12.1	9.7	7.1	5.5	4.5
1992~2011년 평균 총수입 기준	30.8	21.7	17.6	13.2	10.2	8.3
1992~2011년 평균 내수용 수입 기준	18.6	12.8	10.2	7.6	5.8	4.7

주: 수입다양성으로 인한 무역이익은 $[(1-\text{수입비중})^{-1/(\sigma-1)}-1]$을 $[(1-\text{수입비중})^{-1/(\sigma-1)}]$으로 나누고, 이를 자유무역하의 실질 GDP의 백분율로 나타냄.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Feenstra(2010)에서 사용한 수치와 우리나라 주요 수입소비재에 대한 대체탄력성 추정치의 중간값(4.4)과 평균(5.2)을 활용함.
자료: 저자 작성.

4. 정책 시사점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철폐로 수입 소비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정도는 국제가격이나 환율의 변화로 인해 수입 소비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변화하는 폭보다 작음.

■ 따라서 FTA 등 무역자유화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

나. 주요 소비 공산품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입 소비재에 대한 급격한 관세인하나 철폐가 필요함. 물론 이 경우 해당 국산품 생산 · 공급자들의 이해와는 상충될 것임.

■ 결국 수입관세 철폐와 이행기간이 우리나라의 국내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도출된 이상 장기 관세철폐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다. 유효한 국내경쟁 환경의 조성

■ 공산품 주요 수입 소비재 국내유통은 대부분 공급독점 형태이고, 이에 따라 수요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섭력이 없는 한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는 독점공급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유효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① 국내 유통마진율이 큰 수입 소비재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 국내에서 해당 독점수입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수입 소비재의 독점공급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며, 유통 마진은 떨어질 것임.
- 문제는 독점수입재와 충분히 경쟁 가능한 국내 공급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임.
- 따라서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유통마진이 매우 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이 기대되는 수입 소비재에 대해 정부나 소비자단체가 시장에 적절한 가격정보(예: 수입가격과 최종 소비자가격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② 초기 시장진입 기업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

- 경쟁력을 갖춘 국내상품이 시장에 공급된다 해도 초기 시장진입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과 그 외 기존 수입독점업체와의 과당·부당경쟁을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상당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초기 시장진입과정에서 높은 시장진입장벽에 직면해 기존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부당대우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임).
- 한편 현재는 수입 소비재와 경쟁이 어렵다고 해도 필요한 신기술의 개발이나 R&D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 가능한 또는 대체 가능한 신상품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R&D 집중지원대상 품목에 유통마진이 큰 수입 소비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③ 유효한 병행수입 및 유사 수입의 활성화

- 국내 환경이 수입독점기업과 경쟁이 어려워(예를 들어 생산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유사제품의 공급 가능성이 낮은 경우, 효과적인 수입을 통해 기존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유효함(예: 병행수입).
- 다만 병행수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공급독점력이 자동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효과적인 병행 수입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는 먼저 병행 수입제품이 해당 독점 수입 소비재와 동종의 상품으로서 품질이나 기능, 디자인 등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후 서비스체제가 구축되어야 함(병행수입업체 공동의 애프터서비스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를 만들어 애프터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 또한 소비자단체나 제3의 객관적인 검증단체에서 유사 병행수입제품과 독점 수입소비재에 대한 품질 및 가격, 기능 테스트를 정밀히 하여 이를 공개하는 홍보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④ 국내 유통망과 연계한 수요연합체 활성화 여건 조성

-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업체가 국내공급에서 독점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내물류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는 결국 최종 판매를 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대형판매업체에 일임할 수밖에 없음(공산품 주요 수입 소비재 판매를 국내 지사에서 전담하는 경우는 의류나 핸드백 등 일부에 한정되며, 대부분 대형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따라서 대형유통회사 및 판매회사가 판매연합을 형성해 수입 소비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⑤ 수입상품 유통이력제의 적극 활용

-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력이 매우 크거나 소비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져 마진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고정될 경우 유통이력제를 적용하는 것도 중간유통마진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력제는 수입통관된 해당 수입품이 국내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유통과정에서 해당 수입품의 물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유통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억제 및 공정경쟁 유도에 큰 도움이 됨.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 수입 소비재 국내유통의 높은 마진율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활동이 보다 객관화, 조직화, 효율화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주요 활동은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정보화사업, 소비자 운동지원, 월간소비자 발간,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 국제협력 등이며, 물가조사와 감시활동의 경우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가감시원이 기초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정기물가조사와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소비자단체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조직과 예산,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 소비자단체 활동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 가격비교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원가분석과 상품검사 및 비교평가 등은 시설 및 재정지원의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① 주요 수입 소비재의 수입원가, 최종 소비자가격, 유통마진의 정기적 조사 및 발표

-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제가격과 통관에 따른 수입원가 자료를 입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총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수입 소비재와 경쟁인 동종 또는 유사 국내상품에 대한 소비자가격 조사 및 발표 포함).

- 특정 제품의 소비자가격 인하운동보다 해당 및 경쟁제품 판매에 따른 이윤과 마진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가격인하에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음.

② 주요 수입 소비재의 시험평가활동 강화

- 가격 대비 효과 측면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소비자들도 제품의 성능과 기능, 디자인, 가격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마진을 유지하는 수입 소비재의 경우 마진율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입제품과 동종 국산제품 간의 시험평가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데도 도움이 됨.
- 다만 상품의 시험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정부 및 공적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인 성능평가시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 기술과 지식, 능력, 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함.

③ 효과적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와 연계된 소비운동

- 소비자활동은 개별 소비자들이 인지한 정보를 기초로 자발적인 운동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조사된 가격 및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 상품시험 평가 등의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서 정기적으로 가격조사 및 상품평가 결과를 홍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자체별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기적 가격조사 및 상품평가 결과를 알리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주민대상 프로그램에 소비자가격조사 및 상품평가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임.
- 아울러 인터넷상에 전문적인 정보공개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함(현재 운용되는 한국소비자원 T-PRICE를 적극 활용하되 주요 수입 소비재란과 상품시험평가란을 만들어 관심 소비재를 선정, 이에 대한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상품평가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안).

마. 상품 다양성 증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비록 소비자들이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상품의 품질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상품을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고, 이를 구매 · 소비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알릴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칠레산 포도 수입이 확대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품종이 다양해지고, 품질 관리도 잘 되어 이전보다 상품성이 높은 고급 포도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 경우 비록 포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한 것임을 알기 쉽게 전파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수입 관세와 소비자가격의 관계

■ 수입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최종 소비자가격(원화표시)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에 기초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정 수입 소비재의 수입통관가격(P_T)은 해당 제품의 국제시장가격(P_W)에 수입관세 T를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원화표시 환산을 위해 환율 e가 곱해지므로 식 (1)과 같이 표현됨.[4)]

$$P_T = P_W(1+T)e \qquad \text{식 (1)}$$

- 해당 수입품의 통관 이후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국내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통마진, m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 P_C는 식 (2)과 같이 표현됨.

$$P_C = P_T(1+m) = P_W(1+T)e(1+m) \qquad \text{식 (2)}$$

■ 따라서 국내 유통마진 m을 통관가격 P_T의 함수로 가정할 때($m = m(P_T)$) 소비자가격의 변화율($\hat{X} = \frac{\dot{X}}{X} = \frac{dX/dt}{X}$)은 식 (3)과 같이 표현됨. 단 여기서 $\alpha = m/(1+m)$이고, η는 $\eta = (dm/dP_T)(P_T/m)$으로 유통마진의 통관가격 탄력성이며, $\beta = T/(1+T)$임.

$$\widehat{P_C} = (\widehat{P_W} + \hat{e}\,)(1+\alpha\eta) + \beta(1+\alpha\eta)\,\hat{T} \qquad \text{식 (3)}$$

■ 즉 수입소비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의 % 변화율($\widehat{P_C}$)은 ⅰ) 세계시장가격, ⅱ) 환율, ⅲ) 수입 관세율, ⅳ) 국내유통마진의 통관가격 탄력성(η)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계시장가격이나 환율, 국내유통과정의 마진 탄력성이 불변이라고 해도 수입 관세율의 % 변화가 그대로 최종 소비재가격의 %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beta(1+\alpha\eta)$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이때 유통마진이 양수($m \geq 0$)이면, $(1+\alpha\eta)$의 값은 최소극한치 1과 최대극한치 $(1+\eta)$ 사이에서 결정되며, $\beta(= T/1+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국제시장가격이나 환율의 % 변화가 최종소비재 가격의 % 변화에 주는 영향은 수입관세의 % 변화가 최종 소비자 가격의 % 변화에 주는 영향보다 큼을 의미함.
- 결국 수입관세보다 환율이나 국제시장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함.

4) 여기서 수입통관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고려하지 않았음.

부록 2: 상품다양성 효과 분석방법

■ 무역자유화가 수입상품의 다양성을 늘리고 이는 다시 신상품이나 품질 향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와 사실상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반영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

① 기존의 전통적인 수입물가지수(conventional import price index: CIPI)가 상품다양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교정하기 위해 Feenstra(199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확한 수입물가지수(exact import price index)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Pi^M = CIPI(I) \prod_{g \in G} \left(\frac{\lambda_{gt}}{\lambda_{g(t-1)}}\right)^{\omega_{gt}/(\sigma_g - 1)} \quad \text{식 (4)}$$

여기서 σ_g는 수입상품 g의 종류(variety) 간의 대체탄력성이며, 이는 1보다 크다고 가정함.

ω_{gt}는 로그변화 이상적 가중치(log-change ideal weights)를 의미함.

$$\lambda_{gt} = \frac{\sum_{c \in I_g} p_{gct} x_{gct}}{\sum_{c \in I_{gt}} p_{gct} x_{gct}}, \quad \lambda_{gt-1} = \frac{\sum_{c \in I_g} p_{gct-1} x_{gct-1}}{\sum_{c \in I_{gt-1}} p_{gct-1} x_{gct-1}} \quad \text{식 (5)}$$

λ_{gt}는 t기에 존재하는 상품 g의 모든 종류에 대한 소비지출에 비해 t기와 $t-1$기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종류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며 c는 수출국가, p_{gct}는 수출국 c로부터 수입되는 수입상품 g의 가격을 나타냄.

- 식 (4)와 식 (5)에서 보듯이 다양성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상품 종류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람다 비율(lambda ratio)은 작아지고 따라서 전통적인 가격지수에 비해 정확한 물가지수가 작아져($\Pi^M/CIPI$ 하락) 사실상 상품 다양성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함.
- 다시 말해 기존의 통상적인 가격지수들은 새로운 상품종류의 출현과 같은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므로 다양성 변화를 감안한 가격지수와 차이(또는 통상적인 가격지수의 편의, bias)가 생기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상품 종류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성 변화를 중시할수록 이들 가격지수 간의 차이는 커지게 됨.

② 상품종류(variety)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다양성에 의한 무역이익을 계산함.

- 먼저 다음의 차분방정식을 활용하여 상품종류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함.

$$(\triangle^k \ln p_{gct})^2 = \theta_{1g} (\triangle^k \ln s_{gct})^2 + \theta_{2g} (\triangle^k \ln p_{gct} \triangle^k \ln s_{gct})^2 + u_{gct}, \quad \text{식 (6)}$$

여기서 $\triangle^k x_{gct} = \triangle x_{gct} - \triangle x_{gkt}$ 를 의미하며, k는 기준이 되는 특정국가에서의 수입품목(reference variety), s_{gct} 는 수입비중이며 $\theta_{1g} = \frac{\omega_g}{(1+\omega_g)(\sigma_g - 1)}$, $\theta_{2g} = \frac{(1-\omega_g)(\sigma_g - 2)}{(1+\omega_g)(\sigma_g - 1)}$ 이고, u_{gct}는 독립적 교란항임.

- 이렇게 추정한 대체탄력성과 앞서 계산한 람다 비율을 활용하여 상품다양성 증대에 따른 무역이익(gains from trade: GFV)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

$$GFV = \frac{\Pi^{con}}{\Pi^{exact}} - 1 = \left[\prod_{g \in G} \left(\frac{\lambda_{gt}}{\lambda_{g(t-1)}} \right)^{-\omega_{gt}/(\sigma_g - 1)} \right]^{\omega_t^M} - 1 \qquad \text{식 (7)}$$